광주여성영화제, '결혼 별곡' 오디션 현장

"영환아, 우리~ 살아보고 결혼할까 결혼하고 살아볼까?"

25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10여명 참여 열띤 연기대결
결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담아
소재 공모·제작 펀딩 진행
첫 제작 작품…11월 영화제 상영

광주여성영화제가 처음 제작하는 극영화 '결혼별곡' 주연 배우 오디션이 지난 25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렸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영환아, 우리 결혼 전에 1년간 같이 살아볼까?"

"동거 하자는 거야?"

"요즘엔 TV에서 가상결혼도 하잖아. 같이 살아보고 결혼을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지난 25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2층 스튜디오 영화 '결혼 별곡' 오디션 현장. 결혼을 앞둔 남녀 주인공 역에 도전하는 배우들의 연기가 진지하다.

시나리오 대본 연기에 이어 진행된 자유연기에서 한성수씨는 친구와의 일상적인 대화 장면을 선보였다. 자연스럽고 능청스런 연기가 눈에 띈다. 안소리씨는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의 장례식 장면을 연기하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심사를 맡은 김경심 감독, 김채희 광주여성영화제 사무국장, 조재형 PD는 배우들을 열심히 관찰하고 2대의 카메라는 배우들의 연기 모습을 부지런히 담는다.

'결혼별곡'은 올해 7회째를 맞는 광주여성영화제가 처음 제작하는 극영화다. 지금까지 여성의 삶을 주제로 한 영화들을 꾸준히 상영해온 주최측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기로 결정하고 준비작업을 해왔다.

여성영화제는 영화 소재를 찾기 위해 지난해 '관객 이야기 공모전'을 진행했다. 10대 여고생부터 70대 여성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사연을 투고했다. 여고생들의 순수한 우정부터 결혼생활 이야기, 50~60대 여성들의 고단함, 황혼 이혼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지역에서 만들어진 독립영화들이 작품의 퀄리티를 떠나 여성의 시각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여성 캐릭터들에 대한 이해도도 좀 아쉬웠구요. 3회 영화제 때 지역여성영화인에 대한 인터뷰 작업을 진행했는데 제작비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지속적인 작업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대한 토로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보자고 했죠. 지역 여성영화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투고된 내용들은 모두 진정성이 있고, 다 영화로 만들고 싶은 소재였어요."(김채희)

당선작 선정 후 제작진은 생생한 이야기를 담기 위해 2달간 결혼을 앞둔 여성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시나리오 초고는 조재형 PD가 썼고 이후 김감독과 제작진들이 기획회의, 모니터링 등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수정 작업을 거쳤다. 여성과 남성, 기혼자와 미혼자, 20대부터 50대까지 등 다양한 의견이 결합하면서 공동 생산물이 나왔다.

영화는 논문과 프로젝트 진행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건축디자이너 조안이 남자친구 영환에게 프러포즈를 받고 일과 결혼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전개된다.

여성영화제의 모태가 된 여성창작 집단 '틈'에서 활동해온 김경심(45) 감독은 이번 작품이 극 영화 입봉작이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김감독은 조 PD가 감독을 맡은 '홍어의 맛'에 조감독으로 참여했다.

"첫 극영화라 긴장되기는 하지만 지역의 재능있는 스탭들이 참여하고 있어 든든합니다. 영화 제작을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령대별로 결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들을 풀어내고 싶습니다.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유명 배우들의 연기에 익숙해져 있지만 오디션을 통해 참신하고 역량있는 배우를 선발해 열심히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오늘 오디션에도 연기가 눈에 띄는 배우들이 몇몇 보이네요."

오디션에는 광주 연극배우를 비롯해 연극영화과 출신으로 서울에서 활동중인 배우 10여명이 참여했다.

'결혼별곡'의 총 제작비는 1000만원 선이다. 해마다 영화제 기간 동안 영화를 관람하고 난 관객들이 후불제로 모아준 창작기금 300만원과 광주문화재단에서 지원도 일부 받았다. 부족한 액수는 소셜펀딩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작품은 9월부터 본격적인 촬영을 시작해 오는 11월 열리는 제7회 광주여성영화제에서 상영된다. 기회가 닿는다면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등에도 출품할 계획이다. 문의 010-6402-052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웹꾼들, 광주서 포효하다

2016 광주 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폐막

관람객 5만여명 '환호'…웹툰·웹소설 부재 등 아쉬워

2016 광주 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이하 페스티벌)이 나흘간 국내외 관람객 5만여명(주최 측 추산)을 동원하고 26일 폐막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페스티벌은 23~26일 5·18민주광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펼쳐졌다.

이번 페스티벌은 대도서관, 도티 등 인기 창작자(크리에이터)와 BJ(Broadcasting Jockey)를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들은 릴레이 토크, 멘토링, 팬사인회 등에 참여하며 관람객들과 만났다.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창작자는 대도서관이었다. 25일 5·18광장 메인무대에서 열린 대도서관 릴레이 토크에는 초등학생부터 중장년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볼 수 있었다. 개막 전 "행사장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사인 해드리겠다. 아내 윰댕과 꼭 함께 오겠다"고 말한 대도서관은 약 4시간 동안 1500명에게 사인을 해주며 약속을 지켰다.

오픈 스튜디오도 큰 호응을 받았다. 홍콩에서 온 브렌 루이는 관람객 30명에게 직접 만든 립밤을 나눠 줬고 푸아TV는 150여명과 같이 게임하면서 이벤트를 통해 1명에게 인기게임을 증정해 환호성을 들었다.

이외에도 '모바일 시대, 웹콘텐츠의 진화' 주제로 열린 국제컨퍼런스는 웹콘텐츠 산업 진화과정을 보여줬다. 비즈매칭 부분에서는 매칭 40건과 계약 20건이 이뤄졌다. 트리퍼니 컴퍼니는 중국 북경아이미디어유한회사와 MOU를 체결해 대륙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 중국 'Lifelike film and Television'은 한국기업과 연계한 웹드라마 제작비용 투자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웹툰, 웹소설, 웹드라마 등 방대한 웹콘텐츠 분야 중 제한된 부분만 선보였다는 지적이다. 이번 행사는 부족한 예산(10억원) 등을 이유로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youtube)'에서 활동하는 BJ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페스티벌 내용보다는 개막식 공연에 나선 아이돌그룹(B1A4)과 인기 BJ 등이 관람객을 끈 요인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5·18광장을 제외하고는 민주평화기념관 지하 1층에 마련된 '웹꾼 놀이터'나 문화교류협력센터 '웹콘텐츠 기업 전시'는 발걸음이 뜸했다.

또한 당초 계획됐던 윤태호(대표작 '미생') 등 웹툰 작가 초청이 무산된 점도 아쉬움이 컸다. 웹콘텐츠를 대표하는 웹툰 프로그램 부재로 인해 '웹콘텐츠를 소개한다'는 페스티벌 목적이 힘을 잃었다는 목소리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피아니스트 강혜령 귀국 독주회

28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강혜령이 오는 28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귀국 독주회를 연다.

연주회 레퍼토리는 베토벤의 '피아노소나타 27번',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 바흐의 '파르티타 제2번 D단조 샤콘느'(브람스 편곡버젼),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소나타 7번'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임규석씨가 곡 해설을 맡았다.

제48회 호남예술제에서 최고상과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낸 강씨는 광주예고를 거쳐 독일 트로싱엔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마쳤다.

그녀는 독일 유학 중인 2014년 파도바 국제콩쿠르에서 3위를 차지하고, 2015년에 독일에서 지급하는 실기 장학금을 수상했으며 독일 현지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쳤다.

귀국 후 연세대학교와 광주 예술영재교육원에 출강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같은 레퍼토리로 독주회를 가졌다. 전석 2만원. 학생 50% 할인.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그라시아스합창단 콘서트 '스바보드나'

오늘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바이올리니스트 오스마노프 출연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하며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그라시아스합창단 정기 콘서트 '스바보드나'가 27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스바보드나'란 '자유롭게'라는 의미의 러시아어다.

이번 공연에서는 지난해 그라시아스합창단을 독일 마르크트오버도르프 국제합창제에서 대상 수상으로 이끈 지휘자 보리스 아발랸과 야샤 하이페츠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최고 연주자 특별상 수상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칭기스 오스마노프가 출연한다.

연주 레퍼토리는 모차르트의 '플루트협주곡 G장조', 브람스의 '바이올린협주곡'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2015 독일 '마르크트오버도르프 국제합창제'에서 최고상(혼성1등상) 및 특별상, 2014 이탈리아 '리바 델 가르다 국제합창대회'에서 대상, 스위스 '몽트뢰 국제합창제'에서 1등상을 수상했다. 수익금은 아이티와 아프리카 등 어려운 나라에서의 자선공연 및 국내 소외계층과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에 사용된다. 문의 062-655-72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